

“염불 수행 지향점도 부처 되는 것”

불교학연구회 건봉사서 하계워크숍... 염불 수행에 대한 담론 펼쳐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염불은 쉬운 길(易行門)로 알려져 있다. 염불 수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758년 발징 스님이 만일선원(萬日禪院)을 세운 이래, 몽골 침입 때는 백련결사 운동의 근간이 되는 등 염불수행의 중심도량으로 활약했던 고승 건봉사(주지 도후)에서 염불 수행에 관한 학술적 담론이 펼쳐졌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8월 22~23일 고성 건봉사에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종수 동국대 외래강사가 ‘건봉사와 만일염불회’를,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이 ‘염불선과 예수기도의 비교종교학적 고찰’을,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이 ‘염불수행의 의미에 대한 일고’를, 무상 스님(경기 광주 지장사)이 ‘실상염불선의 이해와 실수 소찰’을 발표했다.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

#조선조 억불 사실 아니다

이종수 외래강사는 발징 스님의 만일염불회를 계승한 1801년 제2차 만일염불회를 중심으로 건봉사에서 일어난 만일염불회를 살폈다.
이 외래강사는 “송유억불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불교가 폄박받았다는 기존 주장은 틀렸다”며 “18세기 이후 억불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조선 후기에는 휴정 스님이 경절문 원문본 염불문의 삼문(三門)을 드는 등 불교가 통불교적 성향을 띄게 됐고, 스님들이 부역에 종사하게 된 것도 제도권으로 승단이 포섭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종수 외래강사는 올 2학기 제출할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염불과 예수기도 유사해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은 염불선과 개신교의 예수기도(Jesus Prayer)를 만트라 수행으로 간주하고 두 수행법의 유사성을 고찰했다.
성 연구원은 “염불선과 예수기도는 ‘말’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의식이 변형될 수 있고, ‘헌신과 믿음’에 기초한 수행이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체험적 인식을 줄 것을 역설하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수행법 모두 인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전부 아니며, ‘사랑(慈悲)’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도 같다”며 “염불선과 예수기도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어나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근본성품”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 원만 덕상을 관찰하는 관상염불(觀象念佛),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무량공덕을 상상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 △부처님 법신이 중도실상의 묘심(妙心)임을 관조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을 실증 지도했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100여 사부대중들은 23일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해 정법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날 법문에서 정법 스님은 “한국 불교가 시대의 요구와 바람의 수용을 못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은 종지를 살피고 세교학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승가교육 등은 수행과 승가상 정립 등과 직결돼 종단 교육체제 재정비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1994년 개혁 후 매너리즘에 빠진 종단현실도 언급했다.
정법 스님은 “종단이 시대변화를 쫓지 못한 채 종교 여론과 역량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종책의 한계와 집행기능의 문제점을 드러낸 현재대로라면 자기혁신과 변화가 있기 어렵다”며 “불교학 연구자 등 교계지식인들이 나서 각 분야별 자기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법문했다.

조동섭 기자

#염불은 쉬운 수행법 아니다

법상 스님은 “염불이 쉽다는 것은 오해”라며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쉽다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 모든 수행이 그렇듯 염불의 궁극적 지향점도 삼매를 통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며 “염불수행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극락에 왕생함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불은 본래 부처 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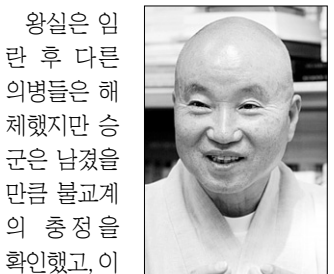
무상 스님은 “염불의 염(念)은 사라마다 마음에 나타난 생각을, 불(佛)은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깨달음

임진왜란 조선 대불교정책 변화시켜

법산 스님 광해군 추선 기념 학술세미나서 주장

임진왜란이 조선왕조의 대불교정책에 일대 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보조사상연구원장)·사진은 8월 22일 남양주 불인사에서 열린 제2회 광해군 추선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 의승장 영규가 청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은 승군(승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선조는 서산 대사에게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주어 전국의 의승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왕실은 임란 후 다른 의병들은 해체했지만 승군은 남겼을 만큼 불교계의 충정을 확인했고, 이는 불교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법산 스님은 “왕실의 불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서산 사명 영규 의업 각성 등 당시 활동하던 스님들이 산문을 정비할 여유를 줬고, 이때 현재까지 전해지는 법통이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어 스님은 “광해군이 폭군이냐는 평가도 있지만, 국제적 외교관계에 대해 대담함과 능란함을 보였고 불교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차차석 등방 대학원대 교수가 ‘백곡처능의 간폐 석교소와 탑유교주의’를,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이 ‘광해군 시대 대표적인 고승들의 국가의식’을, 감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임란 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 발굴 벽화 등 최초 공개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불교문화전 10월 4일까지

최초로 공개되는 임강사지 발굴 벽화를 비롯해 백제불교 문화재가 한자리에 선보인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백제불교 문화를 한자리에 정리한 ‘백제 가람에 담긴 불교 문화전’을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해)과 공동개최하는 전시회에는 백

제 불교의 발자취 및 사원, 불상, 불교 공예, 사원건축과 백제 불교의 대외교류 등 6개 주제로 나누어, 백제 불교문화재 270여 점이 선보인다.

‘백제 불상을 통해 ‘백제의 미소’가 소개되는 것을 비롯해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 광배와 청양 본 의리 가마터에서 나온 도제대좌 등 백제시대 대불이 전시된다. 백제 목탑자가 재현되고, 사리기 등 백제시



대 사리장엄구 다수도 전시된다. (041)833-8562 조동섭 기자

“불교 생명관은 불교의 사회적 책무”

정병조 교수 만불학술회의서 ‘생명 본질과 현대적 가치’ 기조강연

황우석 박사 사건과 존엄사 논란 등 생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이어지는 때, “불교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물음과 같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사진)는 만불회(회주 학성)가 8월 26일 동국대에서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만불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 했다.

정 교수는 “생명의 기원과 가치를 논하는 첨예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며 “관념적이고 교조

적 접근이 아닌 불교적 원리로 해석한 결과에 대해 현실적인 응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근본불교에서 본 생명’에서 “부파불교에서는 선정수행과 관련해 체온과 의식이 생명에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불교윤리에서 본 생명’에서 “바람직한 불교윤리의 정립은 현대인들의 윤리적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영 불학연구소 연구원은 ‘선의 관점에서 본 생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우희중 서울대 교수는 ‘과학시대에서 생명과 나를 찾아서’를 통해 “자신을 이르는 이상(我相)이 열려야 적극적인 비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장경 특별전

東大 중앙도서관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신재호)은 9월 1~12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부처님 말씀 곳집’을 주제로 대장경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동국대가 소장한 △한국판(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인경본),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중국판(송판대장경, 건륭대장경, 홍무남장, 홍무북장, 빈가대장경 등) △일본판(대정신수대장경, 대일본 속장경, 남전대장경, 국역일체경 등) △기타판(티벳대장경, 태국대장경, 팔리대장경 등) 대장경들을 선보인다. (02)2260-3457

조동섭 기자

한·중·일 목탑지 최초 보고서 나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목탑지’ 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목탑지를 최초로 분석·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최근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 연구(I) - 목탑지(木塔址)>를 펴냈다.

보고서에는 5~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절터 58개소(한국 16개소, 중국 2개소, 일본 40개소)의 발굴조사 현황과 목탑의 기단, 계단, 평면 형식, 심초 설치 및 안치, 출토유물에 대한 내용을 표와 도면, 사진, 참고문헌 등과 함께 수

록했다.
또한, 고찰편에는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일 고대 목탑지 비교분석 내용을 수록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왕흥사지, 정림사지 등 백제 고도(古都)의 절터를 조사하면서 비슷한 시기의 동아시아 고대 절터와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 연구’라는 기획연구 계획을 수립했다.
김용민 관장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목탑지를 집대성한 보고서가 발간된 사례는 없었다”며 “고대 사찰 및 목탑지 발굴조사와 이에 대한 정비·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보물 제200호)’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제1313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보물 제1366호)’ 등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3건을 국보로 승격한다고 8월 28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1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1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1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 일시 : 불기 2553년 9월 20일(음 8월 2일) 일요일 - 9월 26일(음 8월 8일) 토요일(7일간)
- 교육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69-4(밤실마을) 울곡사 (062-263-4575)
- 교육 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 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 교육동참비 : 일십만원원 (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 접수 기간 : 불기 2553년 9월 18일까지
- 접 수 : 총무스님 010-3639-2946
교무스님 010-2633-7633 재무스님 011-9605-5155
-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 (가사, 장상, 목탁, 요령,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 과 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육, 시식 등)
거채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